최재희의 인물로 본 미얀마 ⑥ 킨메이타 수원이주민센터 대표



▶ 한줄 요약
킨메이타 대표는 한국 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채 혼란한 미얀마의 현실을 마주한 미얀마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다독이고 위로해주고 있다.

한국서 미얀마가정 보듬는 자비보살



'수원이주민센터 킨메이타' 대표는 필자가 한국에서 만난 최초의 한국-미얀마 다문화 가정이다.



수원이주민센터에서 진행한 미얀마 프로그램.



킨메이타 대표는 미얀마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단일민족' 이라고 학교에서 배웠다. 하지만 대학교를 들어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나라도 '단일민족' 이 아니라 '다문화 사회' 임을 점점 느끼게 되었다. 동년배 중에는 다문화 가정이 많지 않지만 4~5살 어린 후배들을 만날 때면, 우리 주변에 다문화 가정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주로 만났던 다문화 가정은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일본이었다. 미얀마에서는 미얀마 여성들과 결혼하는 한국 남자들이 꽤 있기 때문에 미얀마-한국의 다문화 가정을 볼 수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한국-미얀마 다문화 가정을 쉽게 볼 수 없었다.

미얀마 쿠데타는 정말 나쁜 일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로 인해 한국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직업군의 좋은 미얀마분들을 만나게 되었다. 경기아트센터에서 '미얀마의 봄' 이라는 문화제가 열리기 전 날, 최종 연습을 하기 위해 모두가 모인 날 처음으로 수원이주민센터 킨메이타 대표를 만나게 되었다. 맑고 선한 두 눈을 가진 그와 대화를 하는 내내 알 수 없는 편안함을 느꼈다. 내가 한국에서 만난 최초의 한국-미얀마 다문화 가정이었다.

그는 수원에서 남편, 아들 두 명과 함께 오순도순 살면서 수원이주민센터 대표직을 맡고 있다. 이 센터는 이주여성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다문화강사와 세계시민강사 파견 사업을 진행하며 이주민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친다. 또한 한국 생활에 관해 필요한 상담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이주민들이 한국생활을 편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서로에 관해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나의 논문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바로 '불자' 라는 사실이었다. 미얀마 국민들의 대다수가 불자이긴 하지만, 미얀마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 등 다양한 종교를 가진 미얀마 국민들도 있어서 먼저 밝히기 이전에는 어떤 종교를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가 없다. 그의 삶의 첫 걸음도 불교에서 시작되었다. 불자인 부모님 밑에서 자란 모태불자다. 아직까지 불법의 환희심 중 잊을 수 없는 일은 막내 동생의 신뿌의식을 부모님 대신 치뤄준 날이다. 부모님의 은혜를 남동생의 신뿌의식이 거행되는 날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마음이 들어서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다고 한다. 그의 불심이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는 일화였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나중에 자식을 낳는 인연이 생긴다면 나도 미얀마 사람들처럼 자식들이 10살이 되는 해에 머리를 깎이고 절에 들어가 스님들과 일주일 혹은 한달 정도 함께 생활하는 신뿌의식을 거행해주고 싶다는 간절한 원이 생겼다. 타국에서 적응해 사는 것은 아무리 옆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도 때때로 외로운 법이다. 그는 외롭거나 마음이 복잡할 때 한국 사찰에 찾아가 기도를 하거나 명상을 한다. 그러고 나면 마음 한켠에 찾아왔던 번민과 외로움이 정화되는 것을 느낀다. 그의 말을 듣다 보니 유학생활 중 힘들거나 외로울 때마다 찬란한 황금 빛이 감도는 쉐다곤 파고다에 가서 기도하던 나의 모습과 교차 되었다.

"선생님에게 불교는 어떤 의미인가요?"라는 질문을 하자 그는 "불교는 인생의 동반자"라고 답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자비를 바탕으로 매순간마다 삶에서 평화로운 선택과 행동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에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 이외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오계를 최대한 잘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하는 그의 말에 스스로의 어리석었던 생각을 반성하게 되었다. 가장 기초적이면서 근본적인 오계와 같은 것은 너무 쉽다며 한 때 불교의 심오한 교리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던 편협한 생각을 했던 이십대 초반의 과거의 내가 생각났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갈수록 '오계' 를 지키고 '자비심' 을 갖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인생에 있어 중요한 일인지 깨닫고 있다.

한국서 만난 첫 미얀마 다문화 가정
이주민 센터 대표로 다양한 활동 중
부모님 대신 동생 신뿌의식 치뤄 준
신심 깊은 불자…'마음의 평화' 강조

미얀마 문화 속 불교의 가치가 가장 잘 녹아 있는 것이 '기부문화' 라고 했다. 쿠데타가 어느덧 100일이 지난 지금 힘든 시간 속에서 미얀마 국민들이 버틸 수 있었던 부분에 국민들 서로가 서로를 돕는 기부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에서 여러 시위 활동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한국어로 번역한 미얀마 전래동화 책인 '마운포와 호랑이' 와 '왜 물소는 윗니가 없을까?' 의 수익금을 미얀마 현지 민주화 단체에 기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생활의 노하우와 따뜻한 마음을 바탕으로 미얀마 쿠데타 상황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미얀마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본인 스스로도 쿠데타에 대한 많은 분노와 좌절감이 있을 텐데 오랜 명상을 통해 다져온 평정심과 자비심을 바탕으로 한국 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채 혼란한 미얀마의 현실을 마주한 미얀마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다독이고 위로해주고 있다. 불교의 교리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를 삶에서 실천해야 한다고 그는 굳게 믿고 있다. 하지만 이번 쿠데타를 겪으면서 '불교의 나라' 인 미얀마에서 스님들의 목소리가 예전만큼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큰 스님들의 감금이 '리더' 의 부재를 만든 것일 수도 있다. 그는 이번 일이 끝나고 나면 미얀마의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시사했다. 미얀마가 오랫동안 불교국가이긴 했지만,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자유를 존중하고 서로의 종교 문화가 다른 점을 이전보다 더욱 잘 이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교는 자비를 기본으로 해서 평화적인 실천이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 미얀마인들이 마음의 평화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가치라고 봅니다. 욕심 없고 자비를 삶에서 수행하는 생활이라 생각합니다." 그의 말이 오랫동안 가슴 속에서 울려 퍼졌다. 미얀마에서 만났던 다수의 미얀마 지인들이 했던 말들과 동일한 말이었다.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로 살면서,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들을 위한 정착 지원활동을 하는 킨메이타 대표님의 행(行)에서 불법의 향을 느낄 수 있었다.

미얀마 사람들의 대다수의 삶의 나침반인 '오계' 와 '자비' 가 아름답게 사회 속에서 퍼지던 나라였지만, 소수 사람들의 삼독으로 인해 현재 미얀마의 삶은 모든 것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 스스로 지은 일의 과보를 받는 '자업자득(自業自得)' 의 결과가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미얀마 사태가 파사현정(破邪顯正)으로 올바른 길로 나아가길 부처님오신날인 5월을 맞아 더 열심히 기도 해야겠다. 미얀마에 다시 좋은 날이 올 때 킨메이타 대표님이 추천해주신 천불천탑의 신비가 가득한 바간에 진득하게 머무르며 명상을 하는 날을 꿈꿔본다.

〈양곤대 박사과정〉

빙의치유(영가장애) 상담환영!!
빙의 문제는 최고의 전문가를 만나야 해결됩니다! 전화상담,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 빙의의 정의 : 나와 다른 음의 에너지(죽은사람 · 동물 · 식물 · 기타 모든 영적 기운)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 신체적,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함.
■ 빙의문제의 해결 : 신체적,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음적 에너지(영가기운)를 몸으로부터 분리, 천도해 주어야 이상증세, 이상행동이 바로 잡아짐(퇴마와는 다름). 약을 먹거나 병원치료도 효과가 나타남.
■ 여러 빙의증세 및 음적 에너지(영가기운)의 여러가지 영향
① 이사후 집이나 가게 등에 머물러 있는 경우
(집에 우환 발생, 꿈자리 사나움, 가위눌림, 가족간 불화, 가게터와 사업장 여관,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사람이 죽은 경우 장사가 안됨, 사고나 싸움이 잦음)
② 사람에게 빙의된 경우 병원에서 이상은 없다는데 증세는 여전한 경우
가위눌림(밤마다 또는 가끔씩, 수많은 꿈에 시달림, 비몽사몽, 자고나도 몸이 무거움. 토끼(잠들었다. 깨었다를 반복), 불면증(잠못 이룸)
③ 환청(이상한 소리 들림), 환각 증세 일어남
자살충동, 과다한 음주, 폭식, 불안증세, 우울증, 대인기피증, 알수 없는 통증, 초·중·고등학생 · 대학생 이상행동 폭력적 행동, 집중력 저하, 학습능력저하
④ 장례식장, 상갓집, 국내 및 해외여행 다녀온 후 이상 증세 있는 경우
⑤ 동물영가가 들어온 경우
많이 키우고 10년넘게 장사한 경우(집안에 급병, 급사, 우환, 각종사고), 집에 키우던 개, 기타 동물 잡아먹은 경우, 뱀술 등을 먹은 후 이상증세 있는 경우
⑥ 식물영가 (거목 및 꽃나무를 베어낸 경우)가 몸에 들어온 경우
- 머리, 가슴, 팔, 다리 찢어지는 통증이 있으나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경우
· 신기운에 의한 신병, 무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광증 있으신 분
· 병원 다니고 여러번 굿하고 천도재 해도 효과 못보신 분 · 정신과병원 오래 다녀도 차도가 없으신 경우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천도가능함) · 상황에 따라 방문상담도 가능하며, 타종교인, 무종교인 상담도 가능

■ 환자상태를 상담해서 문제 해결 프로그램으로 진행 - 육지에 계신 분 당일천도(아침 비행기, 오후 비행기) 가능!
■ 차후 지속관리 상담해 드림 (또다른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음)
■ 빙의치유전문상담사 (전문자격 갖춤) - 전생빙의 트레이너과정 수료!
■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영가, 신기운 제령 최고의 권위 실력 갖춤 - 20여년 경력, 임상 노하우 갖춤!
■ 원격치유가능 (외국에 있는 환자도 치유가능, 환자가 오지 않더라도 빙의 진단 및 해결)
◉ 오시는 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연동) 삼무공원 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상담문의처 : 제주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 영가천도 전문상담원 문의전화 (064)746-0789

나이가 들어가며
염불이 점점 힘들어 지는 스님들에게
마이크와 2m 떨어져 지극히 작은 염불에도 장엄하고 은은한 소리를 만들어 신명나는 본사 견본으로 소리 비교만 한 번 해보세요! 소리비교값은 커피 한잔!
수준급을 자랑하는 법당 마이크와는 비교시 장난감수준!
형편이 안되면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꿔도 소리는 배가됨!

디지털앰프 다루기 1초!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시설, 고장없음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백문이 불여일견!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3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완벽시설,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가능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스탠드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48만원

시중에 없음
마이크만 구입 가능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 만듬!
가격 ₩58만원